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다보니 내 자신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 비난의 소리와 우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를 보고 듣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더욱 힘써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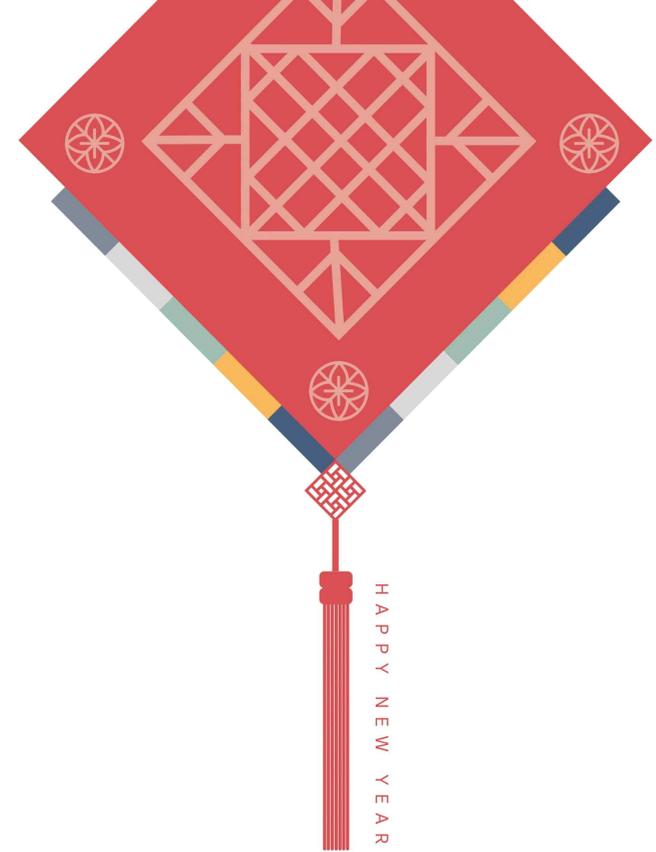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과 가르침,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진리의 참된 복음을 말합니다. 곧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은 그대로 힘써 행하며, 삶을 통해서 잘 녹아날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구원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기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리의 복음을 듣고 힘써 행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풍파와 헛된 사상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HAPPY
NEW
YEAR



2023 설 가정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문동교회**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찬 송 301장 인도자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2022년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인도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 씬 ..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 설 교 자

기 도 인도자

합심기도 다 같이

- 1) 불신자 가족을 위하여
- 2) 교회를 위하여
- 3)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을 위하여
- 4) 식구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 5) 마지막 인도자의 기도

찬 송 559장 인도자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